

시론

미·일·EU '돈풀기'에 적극 대응을



이종운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한국외대 명예교수

최근의 세계경제는 마치 돈 풀기 경쟁에 들어선 양상이다. 미국은 경기회복을 위해, 유럽연합(EU)은 재정위기에 빠진 나라들의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 그리고 일본은 엔고(円高)를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마구잡이로 통화량 늘리기(양적완화)에 나서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이들 국가의 경쟁적 통화량 늘리기가 가져올 영향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 우선 주요 국가들의 통화량 증발(増發)로 인한 전 세계적 인 유동성 증가로 인해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원자재를 수입하는 한국제품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둘째, 미국·EU·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한국으로 단기성 외자 유입이 확대될 것이며, 이는 원화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져 한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 한국 수출경쟁력 약화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확대될 것이고, 한국에 유입된 단기성 외자의 유출 급증으로 이어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경제가 1997년에 경험한 외환위기로까지 치달을 개연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은 대선정국과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인해 경쟁적 통화량 증발이라고 하

는 세계통상환경의 변화에 이렇다 할 정책 대응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 미국·EU·일본 등 선진국의 통화량 증발에 대해 한국경제는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 무엇보다 단기자금의 유입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정책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좀 더 낮출 여지가 있다.

“
한국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돼
단기외자유입 늘면 금융불안도
외환시장 교란 막을 정책 찾길

가뜩이나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이자율을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경제는 유효수요의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아닌 코스트푸시(cost-push)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상존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이므로, 이자율 인하는 단기성 외자유입을 억제할 것이고, 동시에 투자 유발에 따른 경기 진작효과도 기대된다.

그리고 외자의 유입은 자유롭게 하되 외환시장을 교란시킬 정도의 단기성 유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외환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확고한 정책조치가 강구돼야 한다.

미국·EU·일본의 통화량 증발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자국 통화의 가치를 하락시

켜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각별히 예의주시해야 한다. 1996년에 한국 경제가 급속히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237억달러까지 확대돼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게 된 데는 1995년 4월 미국과 일본 간에 이뤄진 '엔저(円低) 용인' 합의로 인해 같은 해 8월부터 엔화가치가 급속히 하락한 것이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EU·일본 등 선진국가의 통화량 늘리기와 세계적 농산물 홍작은 농산물 가격을 급등시킬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요구된다. 중동국가들의 정변과 그에 따른 정권의 몰락, 나아가서 이들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혼란을 초래하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통화량 증발로 인한 국제농산물 가격의 급등과 이에 따른 이들 국가의 식량구입난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어려움이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 경제에도 밀려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선제적 대응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정책당국은 식량공급을 담당하는 곡물메이저 및 종합상사들과 유기적 협력 체제를 수립해 주요 수입농산물의 세계적 작황과 유통구조를 면밀히 분석, 경우에 따라서는 선물거래를 추진하는 등의 대응책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미국·EU·일본의 무제한적 통화량 증발이 물고 올 세계 경제의 교란 가능성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할 때다.

leejy@hufs.ac.kr

천자 칼럼

저체중 주의보

다이어트를 현대인의 문제로만 생각하면 오산이다. 중세 여성들은 꼭 죄는 코르셋 탓에 수명이 짧아졌고, 일부는 실신할까봐 정신 번쩍 들게 하는 독한 향수를 갖고 다



의 저체중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그제 발표한 '한국인 체중변화'에 따르면 1998~2010년 20대 여성 저체중 비율이 12.4%에서 17.8%로, 30대 여성은 4.1%에